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 제도 개선해야”

<예비타당성조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어제 제주에서 토론회 개최
송재호 위원장 “본권 강화…
예타 제도 없어질 것” 전망

지역 발전계획 근거 마련
제2예타 면제 사업 주문도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반영 여
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와 제
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제주연구
원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와 산업
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연구원, 제
주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
해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예타는 없
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장은 “예타는 정부가 수익
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지방에 재정
을 배분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가 24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오면 재정배분을 못받아 지방은 답
답하기만 하다”며 “그것을 ‘통국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은 기존처럼 경
제성을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으로 바꾸어 비교적 중앙정부의 예
타 넘기가 용이해졌다”며 “궁극적으
로 분권강화와 함께 예타 제도도 시
간이 지나면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면 실증단지가 될 수 있다”
며 “특별자치와 제주 계정이라는 포

괄적 보조를 노력해준다면 균형위에
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설명회에 이어 마련된 전문
가 토론회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터져 나왔다.

고성규 제주지역혁신협의회장은
“4차 균형발전계획의 향후 주요 과
제 중 하나가 지역여건을 종합진단
하는 핵심지표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결과가 없다”며 “지표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면 제주도가
항상 1%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 의구심과 전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권마

다 바뀌는 발전계획의 연속성의 중
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도두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필요한 사업임은 맞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
을 쉽게 받은 것 같아 도민들의 감흥
이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제2의 예타
면제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
앙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을 과감히 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아시아 평화 향해”… 제주포럼 준비 순항

올해 14회째 맞는 포럼 5월 29일부터 사흘간 개최
세계 70여개국 5500여명 참석… 71개 세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9일부터 31
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서 세계 70여개국 55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제14회 제
주포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아시아의 회
북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
합’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제
주 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과 세계 각국의 학자와 전문
가,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회복탄력
적 평화를 향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
력과 통합의 길을 찾는다.

특히 올해 제주포럼에는 하인츠 피
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블
전 호주 총리,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
드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
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쫘틴셰
전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리자오
싱 전 중국 외교부장, 자크 랑 전 프
랑스 문화부·교육부 장관 등 전세계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제주포럼은 외교안보 등 평
화 이슈(36개 세션)뿐만 아니라 번
영(18개 세션), 지속가능성·다양성·
글로벌제주(이상 14개 세션) 등의
핵심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총 71개
세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20여
개의 평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
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
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지도자 세션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
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블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가 참여해, 제14회 제주포럼의 대주

제인 ‘아시아의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에 대한 해안을
나눈다.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특별대
담 세션에서는 세계적 석학인 ‘그레
이엄 엘리스 하버드대 교수, 마틴 자
크 칭화대 명예교수, 리자오싱 전 중
국 외교부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
보 등이 참여해 ‘미중관계의 미래를
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운명’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헬
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간의 특
별대담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이
와 함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자크 랑 전
프랑스 교육부장관, 도종환 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중견 배우 유동근
이 출연하는 특별세션 등이 마련돼
있다.

고대로그자

미세먼지 줄이고 경제 살리기 ‘방점’

정부,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추경안 6조7000억 심의·의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선제
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및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국
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
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
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
는 내용의 안건 등도 의결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과
관련해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
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수
송, 생활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

출원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
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했다. 일상 생활 속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도 지원한다.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
기 위해 예방·산불진화인력을 확충
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과 창업
초기 이후 중도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텝업업 전
환펀드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
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를 조기 실행한다. 냉난방용 연
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 부모 세
대까지 확대한다.

서울=부미현기자

도민주 매입 요구에 道 “문제 풀 것”

도-ICC 소액주주협 면담서
회원들 “매입안 제시” 건의
도, 절차·규정 등 검토키로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주)제주국
제컨벤션센터(ICC제주)의 도민주
매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2019년 4
월 24일 2면)한 가운데, 소액주주와
첫번째 만남을 갖고 의견수렴에 돌
입했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ICC제주 회의실
에서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 등 도청
관계자와 소액주주협의회 회원 14명
이 만나 도민주 매입 문제를 논의했
다. 이날 참석한 협회 회원들은 1시
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각
자가 겪은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하
며 제주도에 구체적인 매입안을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ICC제주 도민주를 매입한 소액주
주들은 총 3840명으로 액면가 68억

원 규모의 136만주를 보유하고 있
다. 소액주주들은 1997년 ICC제주
도민주 공모 당시 수익 배당을 약속
받고 주식을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2006년과 2009년 도민주 매입이
추진됐으나 기업주와의 형평성 문제
로 소송에서 패소, 계획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2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제주도가 도민주 매입이 가능
해졌으며, 지난해 8월 소액주주 일부
가 제주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매수금액, 매수시기 등의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하진 않았으나,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
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양기
철 국장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의해
(도민주 매입을) 검토하겠다”며 “구
체적 예산은 도의회의 몫이다. 매수
금액 등은 검토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소진기자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산림기능
인 양성과정 교육’을 오는 6월 10일
부터 6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하고, 4월 30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
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하면 산림경영기술자(기능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수료자(104명) 가운데 산림
경영기술자격(기능2급)을 취득한
교육생은 90명(2016년 28명, 2017
년 30명, 2018년 32명)이며, 도내 산
림사업법인 등에 취업한 산림기능인
은 71명이다.

고대로그자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안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분권 모델을 재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주권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역동적 제주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도민께서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 4. 30(화) 16:00 ~ 18:00
□ 장소	아스타 호텔 (제주시 서사로 129(제주시 삼도1동 535-10))
□ 주 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참석대상	정당/시민단체 및 도민 등 100여명
□ 주 제	지방분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 주제발표 :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좌 장 : 심규호 (제주국제대학교 석좌교수) ▶ 토 론 자 : -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마정화 (대통령 소속 재정분권 전문위원) -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전)경영기획실장)

□ 진행 순서	
16:00	◆ 개회식 ○ 사회: 강영봉 사무총장 ▶ 국기에 대한 경례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김기성/김정수 공동대표 ▶ 축 사
16:10	◆ 발제 ○ 지방분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좌 장 : 심규호 (제주국제대학교 석좌교수) ○ 토론자 ▶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마정화 (대통령 소속 재정분권 전문위원) ▶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전)경영기획실장)
18:00	◆ 질의 응답 (플로어 토론 4~5명) ◆ 만찬

※ 주제발표: 20분/토론자 토론: 1인 10~15분 이내/
플로어 토론자 토론: 1인당 3분 이내

탐라선비문화학교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에서는 선비정신 소양을
통한 지역사회의 도덕성 회복 및 단절되어가는 우리 문화
가치를 소중히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 탐라선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개강식 및 수업장소	
• 개 강 식 : 2019. 05. 04 (토) 오후 3시	
• 수업장소 :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강의실 제주도유림문화원 2층(삼성초등학교 정문 앞)	
■ 전학기 수업과목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2019.5.04~6.31(토)	개강식 및 제과목 / 논어(論語) / 감동식
2019.6.5~6.26(수)	제2과목 / 생활 역학 / 이용림
2019.7.6~7.27(토)	제3과목 / 제주명사산책 / 이진영
2019.8.3~8.31(토)	제4과목 / 제주역사 돌아보기 / 신소영/김경주
2019.9.7~9.28(토)	제5과목 / 가정의례(죽음) / 김익선
2019.10.5~10.26(토)	제6과목 / 제주의 금석문 엿보기 / 오창림
2019.11.2~11.23(토)	제7과목 / 제주 고문서 읽기 / 문창선
2019.11.30	수료식
■ 수업료 무료	
■ 신청안내	
•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도유림문화원 2층)	
• 담당자 이창식 (010-8661-9001)	
• 접수기간 : 개강당일까지 접수함.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회 장 강 상 료

延安金氏 翰林學士公派 入島祖 墓祭 奉享 및 定期總會

高麗朝에서 翰林學士로 仕事 하시다가 朝鮮朝로
變革期(1390년대)에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濟州에 落鄕하신 先祖(諱 安寶)의
墓祭를 奉祭 하옵고 다음과 같이 2019년도 定期
總會를 開催 하오니 親族諸位께서 꼭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日 時 : 2019년 4월 28일(일) 11:00
(음력 3월 24일)
- 場 所 : 濟州市 禾北洞(金安坪)入島祖先塋
※우천시에도 金安坪 先塋에서 시행합니다.
- 討議事項 : 1. 2018년도 決算報告
2. 2019년도 豫算案承認
3. 其他事項
- 연 락 처 : 회 장 (진배) 010-3699-5252
총무이사 (영국) 010-9839-1411

延安金氏濟州道宗親會